



박대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33

애덤 킹. 미국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이다. 두 발이 썩어가고 손가락도...

을까. 그렇게 장애인에 관심이 많다면 이 땅에서 신체 장애의...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근원적 불만족'에 대한 설법(苦聖諦)에서 출발한다. 이 고성제(苦聖諦)는 '문제 직시 능력의 계발'과 관련 있다...

애덤 킹 시구와 苦聖諦

치 이벤트인가. '오체불만족'의 오토타에게 상응하는 한국적 사례의 발굴 노력인가.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 무슨 옥심과 무지에 가리워져서인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망각한 뻔뻔한 자화상이다. 애덤 킹의 저 밝고 힘찬 모습이 웅변하고 있는 호된 꾸지람을 듣는다면, 그 아이를 영웅처럼 받기...

'애덤 킹이 한국에서 자랐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되물어야 한다. 그를 버린 한국, 건강하게 가꾸어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거친 땅을 직시해야 한다. 버림받은 그를 보듬어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이방인들의 트리고 따뜻한 마음과, '우리는 한 핏줄'을 소리 높여 외치나 일그러지고 닫혀 있는 마음을 솔직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직시한다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애덤 킹을 불러들여 끌어안고 웃을 수 있...

문제 직시 능력 계발 불만족의 삶 전환

문이다. 죽음을 '영원히 잠들었다'고 말하며 죽음을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중생들. 자기 보호의 본능적 조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껴 가는 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상황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위대한 병안과 민족, 자유를 구하려면 발 밑에 깔린 불안과 불만, 구속을 직시해야 한다. 적당히 멀어두기. 그럴 듯하게 미화하기. 일부러 안 보기. 보고도 못 본 척 하기. 근본은 안 건드리고 바깥 증상만 완화시키기 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苦)라는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통찰력과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고(苦)에 관한 가르침'의 한 의미이다. 애덤 킹에게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중생의 필진 버릇'을 읽는다면 지나친 것인가. 울산대 철학과 교수

한자 한자 정성들여 꾸준히

참물자의 길 사경은 이렇게...

사찰과 수행단체 등 재가불자들이 대상으로 한 사경법회(대회)가 이제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경에는 깊은 신앙심과 정진력이 깃들여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신심의 표현이며 생활이라는 점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경이란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을 한 자 한 자 되새겨 마음 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경하는 행위 자체가 참되고 염불이요 기도요 참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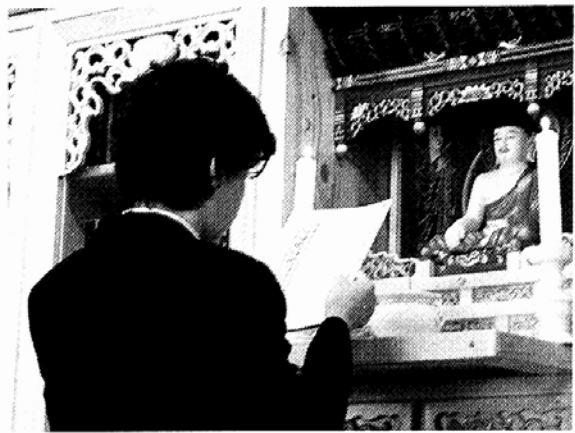
신앙심·정진력 드러내

참회의 한 방편

사경집 20여권 출간

문은 보통 '사경공덕 무량하여 삼업중죄 소멸하니/ 몸과 마음 굳게 가져 보리심을 발원함니/ 세세생생 보살의 길 나아가기 원하오니/ 시방삼세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경이다. 불교사경집을 펴내고 있는 우학대구 관음사 주지 스님은 '사경은 조용히 정좌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한 후 정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러면 번뇌와 미혹의 마음에서 벗어난 청정한 심신이 되어 부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밝은 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경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에서 마련한 사경법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①몸과 입과 마음가짐을 깨끗이 한다. ②주위 환경을 정돈한다. ③바르게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다. ④합장하고 개경계를 읽는다. ⑤편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다. ⑥한 줄 쓰고 난 뒤 합장하거나 삼배를 올리고 다시 사경한다. ⑦사경을 마친 뒤 사경 날짜와 이름을 쓴다. ⑧이웃과 겨레 모든 생명들을 위해 부처님께 발원한다. ⑨자신이 쓴 경전을 들고 소리내어 읽는다. ⑩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 ⑪완성된 사경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부처님께 올린다. 부처님 말씀(경전)을 흔히 문자사리라고 한다. 옛 선사들은 그 문자사리가 중생들의 마음에 와 닿으면 중생들의 어둔 마음이 밝아진다고 한다. 이는 한 생각 밝은 마음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쓰면(사경) 공덕이 된다는 것이다. 어두운 마음을 없애고 안정되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는 수행법으로 사경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경은 참...

◇아침 저녁으로 사경한 경전을 부처님전에 올리고 있는 불자의 모습.

회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사경에 대한 불자들이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경집도 적지 않게 출간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사경집은 약 20여종이 넘으며 불교전문서점 여시야에서는 사경집 코너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다. 그중에서 도서출판 좋은날에서 내놓은 사경집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 이밖에도 석림서원 또는 사찰이나 수행단체에서 출간된 사경집도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서장' 통한 선 공부 ①

강급사에 대한 답서

공부란 '相' 으로부터 자유 획득

"도를 배우는 사람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비록 그와 머리를 맞고도 아치를 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게도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흔히 공부의 지점으로 하는 말 가운데, '밖으로 달려나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밖'은 어디이고 '안'은 어디인가?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며, 왜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반야심경>을 들어 말하면 '물질·느낌·생각·의지·의식의 오온(五蘊)이 곧 공(空)'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빌어 말하면 '색·소리·냄새·맛·촉·촉각'의 한 의미이다. 애덤 킹에게 보내는 한국인들의 갈채 속에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중생의 필진 버릇'을 읽는다면 지나친 것인가. 울산대 철학과 교수

를 가리키며,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경험되는 '상에 머문다'는 말이다. 흔히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이 중생의 씨앗이요 번뇌의 뿌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는 것은 곧 '상'에 머무름을 뜻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면 분별이 생길 수 없고,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면 취하고 버림은 있을 수가 없으며, 취하고 버림은 곧 갈등(渴愛)을 야기하므로 번뇌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공부란 '상'에 머물지 않고 '상' 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함이 된다. 그렇다면 '상' 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 의 자성(自性)이 '공(空)'임을 깨 의식의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밖'은 곧 오온·십이처(十二處)·십팔계(十八界)로 경험되는 모든 '상(相, image)'의 세계

자유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의 자성이 공'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제 거울을 가지고 비유하여 설명해보겠다. '거울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거울'이라고 하면 유리거울을 생각해 떠올린다. 그러나 '거울'이란 것이 영상을 비추는 물건을 의미한다면, 유리뿐만 아니라 물 구리 알루미늄 돌에 이르기까지 그 재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재료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영상을 비추는' 의미에서만 '거울'을 생각해본다면, '거울'은 곧 '영상'을 비추어내는 '기능' 혹은 '작용'일 뿐임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비추어내는 '작용'과 '영상'의 관계를 살펴보자. '작용'이

있으면 '영상'도 있고 '작용'이 없으면 '영상'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상'이 있으면 '작용'이 있고 '영상'이 없으면 '작용'도 없다. 그러므로 '작용'이 곧 '영상'이고 '영상'이 곧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상'은 '상(相)'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작용'은 '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작용'은 '공(空)'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상'은 무상(無常)하게 변화하며 늘 차별되지만, '작용'은 늘 청정하고 평등하다. 그렇긴 하나 역시 '작용'이 '영상'에 비추어내는 '기능' 혹은 '작용'일 뿐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에 나타나는 오온·십팔계의 온갖 '영상'들은 비추어내는 '작'...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용'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비추어내는 '작용'이 오온·십팔계의 자성이며,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울'인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육도 해능은, "그대들이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모든 분별 사랑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무공무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언제든지 온갖 차별되는 '영상'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영상'에 머물러 분별 '작용'을 늘 청정하고 평등하다. 그렇긴 하나 역시 '작용'이 '영상'에 비추어내는 '기능' 혹은 '작용'일 뿐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에 나타나는 오온·십팔계의 온갖 '영상'들은 비추어내는 '작'...

Advertisement for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Buddhist Health Secre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a health method. Includes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상기원' (Sanggiwon).

Advertisement for '살아있는 곡류성분' (Living Grain Components). Features a table of nutrients and benefits, a portrait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상기원' (Sanggiwon).